

최대 승부처는 해발 926m 넘는 3구간 산악코스

김유로는 스프린트 1위 한국선수 선전 1·2구간 더한 종합 1위 유세프 리기기 단양→삼척간 3구간 14일 레이스 돌입 4구간 마지막 서울 이동 후 5구간 달려

마틴 라스(일부미 네이트)가 천안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단양까지 165.5km를 달린 '투르 드 코리아 2019' 2구간 우승을 차지했다.

라스는 13일 대회 2일째 2구간에서 3시간 49초21(보너스 10점)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번째 옐로저지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투르 드 코리아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천안독립기념관을 2구간 출발선으로 정했다. 레이스 막바지 아발라 에드윈(이스라엘 사이클링 아카데미)이 펠로톤(메인그룹)을 치고 나와 독주를 펼쳤지만 최종 옐로 코스 고비를 넘지 못했다. 펠로톤이 에드윈을 따라 잡았고 가장 앞에 있던 라스가 1위를 차지했다. 권순영(KSPO)은 산악코스 1위로 산악왕에 올랐고, 김유로(LX)가 스프린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1·2구간 기록을 더한 종합 1위에는 유세프 리기기(트렙가누·5시간11분1초)가 올랐다. 이어 1구간 옐로저지 주인공 레이몬드 크레데르(팀 유코)가 5시간 11분06초로 2위다.

투르 드 코리아는 14일 올해 레이스의 최고 승부처로 꼽히는 단양-삼척간 3구간 경기에 돌입한다. 올해 대회 코스는 예년에 비해 산악 코스가 크게 줄어들었다. 군산에서



마틴 라스(일부미 네이트)가 13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단양까지 165.5km를 달린 '투르 드 코리아 2019' 2구간 우승을 차지한 뒤 양 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그는 두 번째 옐로저지의 주인공이 됐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진행된 1구간과 서울에서 열리는 5구간은 올해 코스 중 가장 높은 해발 926m를 넘어야 한다. 3구간은 출발선인 단양 대명릉도부

터 76.7km까지 오르막이 이어진다. 해발 926m 여행재휴게소를 넘으면 다시 해발 663m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전체 180.8km 코스 중 절반 이상이 산악 코스인 셈이다. 이후로는 다시 가파른 내리막이다. 레이스 초반은 체력전, 후반부는 치열한 전략싸움이 필요하다.

3구간은 참가 선수들이 대회 전체 레이스 중 최고 승부처로 평가하는 '퀵 코스'다. 한국 선수 중 국제사이클링맹(UCI) 랭킹 포인트가 가장 높은 최형민(금산인삼첼로)은 "3구간에서 어떤 기록을 내느냐에 따라 전체 순위가 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15일 이어지는 4구간은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출발해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까지 이어지는 129.4km코스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는 길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꾸준히 이어진다. 가장 높은 언덕은 해발 119m다. 결승선을 7km 앞둔 지점에서 해발 171m의 언덕을 올라야 한다. 마지막 순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 드 코리아는 4구간을 마친 후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 16일 마지막 5구간을 달린다. 서울 도로에서 진행되는 경기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 오전 8시30분 올림픽공원원에서 출발해 삼성역과 영동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교에서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영동대로, 강변북로, 강동대로, 양재대로 등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통제 우회안내 인강판과 플래카드 55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470명이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산악왕' 권순영의 야망

2구간 산악코스 1위...우승 도전 가파른 3구간서 실력 발휘 승부수



권순영

권순영(26·KSPO 비앙키 아시아 프로 사이클링)은 지난해 '투르 드 코리아 2018'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킨 주인공이다. 최형민(29·금산첼로)이 1,2구간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며 우승 가능성을 높였지만 3구간부터 뒤쳐져 순위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권순영은 산악코스에서 총20포인트를 획득 '킹 오브 마운틴'(산악왕)에게 주어지는 레드플라그(빨간 물방울) 저지를 받았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각 부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저지의 주인공이었다.

이번 대회는 권순영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투르 드 코리아는 권순영의 소속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이자 대한민국의 명성을 달리는 대회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남다르다. 또한 레이스 최대 승부처로 예상되는 3구간은 권순영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가파른 산악 코스다.

권순영은 "지난해 대회를 끝으로 소속팀 선배들이 은퇴하면서 망명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며 "즐겁게 함께 훈련했다. 끝까지 좋은 성적을 함께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순영은 13일 천안에서 단양까지 165.5km를 달린 2구간에서 산악왕에 오르며 2년 연속 레드플라그 저지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1, 2구간 기록을 더한 종합 순위에서도 4위(5시간 11분 15초)에 오르며 최종 우승자에도 도전하게 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류한우 단양 군수 "청풍명월의 좋은 기운 받으세요"

"산악 지형 많아 대회 유치에 최적"

"도담삼봉(嶋潭三峰)과 고수동굴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청풍명월의 고장 단양에서 좋은 기운을 뽐낼 받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투르 드 코리아 2019'의 세 번째 경주인 충북 단양군 류한우 군수는 13일 "국내외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단양 레이스



류한우 단양 군수

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출발선인 전북 군산을 나서 충남 천안을 거친 선수들은 이날 단양에 도착해 하루 머문 뒤 14일 올해 대회 승부의 분수령인 여행재휴게소(해발 926m)가 있는 3구간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류 군수는 "산악 지형이 많은 단양은 자전거 동호인에게 인기가 많고 크고 작은 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투르 드 코리아에 앞서 8~9월에는 소백산 힐 클라이밍·사이클 대회가 과광재~아상면 면~생대도로 60km 구간과 단양강변을 따라 죽령정상에서 이어지는 25km 구간에서 치러졌다. 국립공원 소백산과 단양8경을 휘감아 도는 단양강을 따라가는 코스여서 자전거 마니아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단양군은 '자전거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성면 하방리~현천리에 자전

거 도로와 탐방로, 포토존 등을 갖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단양읍 노동리~상진리 일원에도 총연장 2.8km의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다양한 도로로 구성된 '달맞이길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남한강변 별곡체육공원은 길이 2.4km의 자전거 도로 등이 있어 경북 북부권 스포츠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류 군수는 "단양에서 치러지는 투르 드 코리아가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장기우 동아일보 기자 straw825@donga.com

주최: 동아일보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2019 Tour de Korea 투르 드 코리아조직위

대안자전거연맹 SPO-EX-COM 스폰서: SHIMANO GARMIN THULE

주관 방송사: CHANTEL

sports2i 스포츠투아이에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3일>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Includes teams like SK, LG, NC, KIA, etc.

Before & After 7-Game

Table showing game results for teams SK, LG, NC, KIA, KT, Hanwha, Lotte, and Samsung.

프로야구 기록표 <13일>

키움-NC 9차전 (NC 4승 5패)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Kiwoon vs NC.

SK-KT 11차전 (KT 2승 9패)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SK vs KT.

두산-한화 11차전 (두산 6승 5패)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Doosan vs Hanwha.

롯데-LG 12차전 (LG 7승 1무 4패)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Lotte vs LG.

삼성-KIA 9차전 (KIA 6승 3패)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Samsung vs KIA.

아마추어 경기결과 <13일>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amateur events.

경기 예고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19 <16라운드>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K-League 1.

프로야구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Table with columns for team, score, and game details for KBO League.

오늘의 토트 <14일>

야구토트 스페셜 45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Table with columns for game, time, and teams for the baseball special event.